

2015년 더 기대되는 여성 미술인 3인

감성으로 다가가기 광주미술 이끄는 '우먼파워'

정송규(72) 무등현대미술관 관장, 정희남(59) 대담미술관 관장, 이양숙(48) 갤러리 리체 관장. 이들의 공통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여성이라는 점이다. 여성 특유의 감성을 살려 지역 문화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이들로, 지역 미술계에서 '우먼파워'를 어김없이 과시하고 있다. 또 하나는 모두 작가라는 점이다. 각자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모두 미술관과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지역 미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3명의 여성 미술인들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 갤러리 운영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있다.

무등산 의재로 일대를 '제2의 예술의 거리'로 바꿔놓은 사람 중 한명이 무등현대미술관 정송규 관장이다. 정 관장이 미술관을 만든 것은 지난 2007년이다. 처음에는 작업실을 만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무등산의 품에 안기고 나니 욕심이 많아졌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술관을 만들었다.

정 관장은 7년 넘는 시간을 모두 미술관에 '몰입'했다. 그 결과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사립미술관 중에서도 알아주는 미술관이 됐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해마다 열리고 있는 10개 이상의 기획 전시다. 올해는 첫 전시로 오는 3월4일까지 유승우(68) 전 중앙대 교수와 강태웅(54) 중앙대 교수를 초대해 '강과 유가 함께'전을 열고 있다. 지난 35년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로 함께 해온 두 미술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다.

올해는 미술관의 교육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미술관 옆에 만들어 놓은 아기가 기한 공간을 교육 장소로 리모델링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 관장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만을 보여줘서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며 "무등산에서도 이런 미술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인 정희남 관장이 지난 2010년 만든 담양 대담미술관은 담양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즉석원과 관방제림 사이에 위치한 대담미술관은 미술관 자체의 기능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은 물론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고 있다. 정 관장은 'एको 라이프', 즉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미술관을 꾸렸다. 자연 속에 파묻혀서 전시와 공연을 즐기고, 산책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런 매력 때문에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내외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스킵 와이트먼, 앤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 부부가 다녀가면서 "한국에서 가장 예쁜 미술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관장은 올해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맞춰 기획 전시를 준비 중이다. 담양을 찾게 될 세계인들에게 지역의 미술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술 교재'를 만들고 있다. 수필문화재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교재를 통해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관장은 "그동안 미술 교



정송규 무등현대미술관장

의재로 일대,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

"이름 있는 전시로 스펙트럼 넓힐 것"

육이 단순하게 '그러라' 정도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할 기회가 없었다"며 "스케치북처럼 낙서를 하고 버릴 수도 있지만 가슴과 기억에는 미술이 남을 수 있는 교재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교재는 전국 미술관과 박물관,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관계를 맺은 대만과의 교류 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만 가수 송지영에 지역 작가들을 보낼 예정이다.



정희남 담양 대담미술관장

산책하며 감상 '자연친화 미술관'

"철학적 사고하는 미술교재 구상"

지난 2012년 7월 문을 연 갤러리 리체는 '작품을 잘 파는 갤러리'로 소문나 있다. 갤러리 규모는 작지만 이양숙 관장의 폭넓은 '인맥' 때문에 지역 미술 컬렉터들로부터 사랑받는 갤러리가 됐다.

그동안 갤러리 운영과 함께 광주미술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이 관장은 올해는



이양숙 '갤러리 리체' 관장

'작품 잘파는 갤러리' 컬렉터들에 인기

"중앙과 소통 지역 갤러리 활성화 모색"

갤러리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에 갤러리가 없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돼 왔다. 또 청년 작가 지원전 등 모두 16차례의 기획전과 초대전이 준비돼 있다.

이 관장은 "경제 전망이 앞으로 2년 동안 최악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미술시장은 더욱 힘들어진다"며 "서울 지역 갤러리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갤러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젊은 예술가들, 광주서 저장과 만남 23~30일 'AAT 윈터스쿨'... 14일까지 모집



차이명량

국내 젊은 예술가들이 광주에서 세계적인 예술계 저장들과 만나 예술적 영감을 키우고 창작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광주서 서구 아시아창작스튜디오(옛 서구청사)에서 'AAT (Asian Arts Theater) 윈터스쿨'을 개최한다.

'AAT 윈터스쿨'에는 전국의 20세 이상 예술관련 학과 학생,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해 8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유명예술가의 멘토링,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예술 프로젝트를 보완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만 영화감독 차이명량, 일본 연출가 오카다 토시키, 태국 출신 영화감독 아피차푼 위라세타쿨 등 아시아 저장들이 참여, 워크숍과 강연을 진행한다.

차이명량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으며, 대만의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다.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서현석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유진상 교수 등이 참여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까지. 작품 제안서 심사를 통해 40명을 선발한다. 참가신청은 예술극장 홈페이지(<http://asianartstheatre.kr/>)에서 하면된다. 참가비용은 무료. /윤영기기자 penfoot@

2900원에 읽는 '명작' '올재 클래식스' 13번째 시리즈 출간

동서양 고전을 권당 2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올재 클래식스' 13번째 시리즈가 나왔다. 이번 출간분은 '장자(莊子)' '열자(列子)' '바가바드 기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장자'는 고전연구가 신동준이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 다양한 판본의 자구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한·중·일 3국에서 그간 유통된 주석들을 망라한 번역본이다. 우화 성격이 강한 '열자'는 고전번역가 정창영이 읽기 쉽게 풀어 썼다.

청년기 괴테의 대표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인웅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완역했다. 힌두교 최고 경전 '바가바드 기타'는 '열자'를 번역한 정창영



이 옮겼다. '올재 클래식스'는 2011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올재가 '지혜 나눔'을 표방하며 펴내는 고전 시리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급,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새우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일디자이너,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